

국 어

문 1. 제시된 낱말을 활용하여 만든 문장 중 틀린 것은?

- ① 늘리다 : 양손으로 고무줄을 잡아 늘리고 있다.
늘이다 : 올해는 작년보다 수출량을 더 늘여야 한다.
- ② 거치다 : 이 기차는 대구와 대전을 거쳐 왔다.
걸히다 : 오늘따라 외상값이 잘 걸린다.
- ③ 마치다 : 벌써 수학 숙제를 다 마쳤다.
맞히다 : 퀴즈대회에 나가 여러 문제를 맞혔다.
- ④ 조리다 : 냄비에 무를 깔고 생선을 조리면 맛있다.
줄이다 : 작은 일에 너무 마음을 줄이면 건강에 해롭다.

문 2. 다음 낱말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

- ① 윗입술 ② 위층
③ 윗쪽 ④ 웃어른

문 3. 다음 문장에서 접속 어미나 접속 조사가 바르게 사용된 것은?

- ① 월드컵 축구 대표팀은 불확실한 패스워드와 조직력이 뛰어나지 못해 지고 말았다.
- ② 저는 전사하고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 ③ 정부는 부동산 투기 지역이거나 투기 예상 지역을 대상으로 일제히 단속하기로 했다.
- ④ 청소년을 상대로 술·담배를 팔거나 도박장을 운영하는 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문 4. 밑줄 친 한자를 같은 음으로 읽는 것은?

- ① 顯著 — 著述
② 比率 — 統率
③ 交易 — 容易
④ 見聞 — 謁見

문 5. 다음 중 어법에 맞는 것은?

- ① 연 25%의 연체 이자율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② 이 경매물은 최고 가격 입찰자에게 낙찰합니다.
- ③ 그는 달혀진 약국 문 앞에서 서성거렸다.
- ④ 공사 입찰 신청자는 입찰 보증금을 국고에 수납하여야 합니다.

문 6. 표준 발음법에 따라 발음을 바르게 고친 것은?

- ① 햇벌을 [헛배슬] → [헛배צל]
- ② 솟을 [수צל] → [수슬]
- ③ 뱌고 [뱌:꼬] → [뱌:꼬]
- ④ 째고 [צל꼬] → [צל꼬]

문 7. 다음 글에서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최근 국내 내비게이션 업체는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60여 개 업체가 경쟁하고 있어 선두업체 몇 개를 빼고는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후속업체들은 ()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디빅스플레이어 전문업체 A회사는 빠르면 이달 중으로 동영상 및 멀티미디어 기능을 강화한 내비게이션 ‘애니1’을 출시할 계획이다. 신제품은 기존 내비게이션에 디빅스플레이어를 결합한 제품으로 이전 출시된 제품들이 내비게이션 자체 CPU를 사용해 멀티미디어를 재생하는 것과 달리 멀티미디어 파일 재생은 디빅스플레이어를 이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2.5인치 HDD를 이용하는 디빅스플레이어는 내비게이션과 USB 케이블로 연결되며, 내비게이션 용량을 늘려주는 외장 저장장치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내비게이션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집안에서 디빅스플레이어로 사용할 수 있다.

B회사가 출시한 ‘모두다’는 지상파 DMB 및 위성 DMB 모두를 수신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다. 이전 출시 내비게이션들은 둘 중에 한 가지 DMB 방식만 수신할 수 있었으나 두 방식 모두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졌으며, 위성 DMB의 경우 3년 간 사용료를 내지 않고 시청이 가능하다.

C회사 시스템은 어린이용 애니메이션 ‘뽀뽀뽀’를 SD 메모리에 담아 자사 내비게이션 ‘뽀로로’ 및 ‘뽀뽀나’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한다. 이 회사는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신제품을 기획했으며, 시장 반응 추이를 지켜본 뒤 관련 콘텐츠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 ① 기존 제품과 차별화한 제품
- ② 저가의 보급형 제품
- ③ 사용 방법이 간편한 제품
- ④ 신세대를 겨냥한 제품

문 8. 다음 글에서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루는 신수 불길한 제비 한 쌍이 놀보 집으로 들어가니
 놀보가 제비를 보고 어떻게 반가웠던지, 소반에다 물을 떠서
 처마 밑에 차려 놓고 두 손 합장 절을 하며,

“제비님 오시니까? 어찌 행차가 더디시며 내 간장을
녹이신가?”

앞뒤를 금줄 치고 부정을 가리면서 알 낳기를 기다릴 제,
마음 바쁜 놀보눔이 삼시로 어떻게 만졌던지 다섯 개는
염증이 나서 끓아 버리고, 하나 까서 낳기 공부 익힐 적에
제비 새끼 날라 허고 제 집가에 발을 부쳐 날개를 발발
떨 제, 놀보눔 바라보고,

“떨어집소서. 떨어집소서.”

손을 짹짹 부비여도 종시 아니 떨어지니 놀보놈 바라보다 망당하여 절로 절각(折脚) 기다리다가는 농치가기 쉬울 테니 () 하고, 사방을 둘러보며 아무도 안 볼 때 제비 새끼 집어내어 그 약한 두 다리를 무릎에 대고 자근자근 꺾어 마룻바닥에 선듯 놓고 모르는 체 돌아서서 뒷짐 지고 거닐며 목소리 크게 내어 풍월을 읊으었다.

— 박녹주 창본 「홍보가」에서 ‘놀이 제비 후리는 대목’ —

- ① 울려 놓고 달래리라
- ② 가는 말에 채찍질하리라
- ③ 도랑 치고 가재 잡으리라
- ④ 쏘아 놓은 살이요, 얼지른 물이라

문 9. 다음 시와 주제가 가장 가까운 것은?

그르미 폭르니 새 더욱 희오,
피히 퍼러흐니 곳 비치 블 블는 듯도다.
웁 보미 본턴 또 디나가느니,
어느 나리 이 도라갈 희오.

- ① 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 ②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 ③ 하늘에는 성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 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
—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 ④ 오, 해마다 봄이 되면
어린 시절 그 분의 말씀
항상 봄처럼 새로워라.
나뭇가지에서 물 위에서 뚝에서
솟는 대지의 눈
지금 내가 어린 벗에게 다시 하는 말이
항상 봄처럼 새로워라.

문 10. <보기>의 개요를 <검토 의견>에 따라 고칠 때 적절성이 가장 떨어지는 것은?

— <보 기> —

제목: 전문직의 바람직한 직업윤리

I. 서론: 전문직 종사자들의 직업윤리가 약화되고 있는 현실

II. 본론

1. 전문직의 특성

- 가. 장기간에 걸친 전문적 교육의 필요
- 나. 지식 사용의 자율적인 통제
- 다. 사회 전반에 걸친 막대한 영향력

2. 전문직의 바람직한 직업윤리

- 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식의 사용
- 나. 자신이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자세
- 다.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모색

III. 결론: 전문직의 사회적 중요성

— <검토 의견> —

- 깊이 있는 논의가 되도록 구체적 내용을 보강한다.
- 내용 전개가 논리적이며 통일성 있는 글이 되도록 한다.

- ① 본론 1.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는 직업'이라는 내용을 추가한다.
- ② 본론 1.에 '지식과 기술의 독점적 사용'이라는 내용을 추가한다.
- ③ 본론 1.의 '나. 지식 사용의 자율적인 통제'를 본론 2.로 옮긴다.
- ④ 본론 2.의 '다.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라는 항목을 삭제한다.

문 11. 다음 중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는 것은?

- ① '가지다'는 그 준말로 '갖다'가 있으므로 '가졌다'는 '갖었다'로 쓸 수 있다.
- ② 의존 명사로 쓰이는 '등(等)'은 "책상, 결상 등이 있다."에서 처럼 항상 띄어 쓴다.
- ③ '국제 연합'을 줄여 쓸 때에는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국연'이라고 한다.
- ④ 나이를 표시할 때에는 "제 나이 스물 여섯이에요."에서처럼 십 단위로 띄어 쓴다.

문 12. 다음 공감각적 표현 중 감각 전이(轉移)의 방향이 다른 것은?

- ① 분수처럼 흘러지는 푸른 종소리
- ② 꽃처럼 붉은 울음
- ③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 ④ 흔들리는 종소리의 동그라미 속에서

문 13. 표준 화법에 맞지 않는 것은?

- ① 타인 앞에서 자신의 살아 계신 아버지를 가리킬 때에는 '아버님'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한다.
- ② 장인을 부를 때 '장인어른' 외에 '아버님'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남편의 형님은 '서방님' 외에 '큰아버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
- ④ 남편의 누이동생은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아가씨' 또는 '아기씨'라고 한다.

문 14. '대상을 견주어 그 특질을 드러내는 설명 방식'을 주로 사용한 것은?

- ① 알랭이란 사람은 행복의 조건을 네 가지로 나누어 말한 바 있다. 첫째, 직업을 위한 전문지식을 갖추는 일이다. 이는 생명의 유지를 위한 기본 요건이다. 둘째, 한 가지의 외국어를 익히는 일이다. 셋째, 한 가지의 스포츠를 익히는 일이다. 건강과 레크리에이션을 위해 갖추어야 할 바다. 넷째, 하나의 악기를 다루는 일이다. 정서 순화와 취미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 ② 김소월이나 이상화는 같은 시대를 산 낭만주의 시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 비슷하리라고 단정 짓는 것은 금물이다. 소월은 자기의 서러움을 참고 안으로 삭히는 태도를 취하지만, 상화는 겉으로 드러내 외치는 태도를 취한다. 똑같이 님에게 사랑을 호소하는 경우라도, 전자는 "그립다/말을 할까/하니 그리워" 하고 수줍은 자세를 보이지만, 후자는 "마돈나, 지난밤이 새도록 내 손수 닦아 둔/침실로 가자, 침실로!" 라고 고함치듯 말한다.
- ③ 학생이라고 다 같은 학생은 아니다. 학생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무조건 순종형이다. 이들에게는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말씀에 "왜?"라는 물음이 없다. 어른들은 이런 우리들을 모범생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일단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건잡을 수 없는 게 이 유형이다. 둘째는 늘 "왜?"라고 묻는 유형이다. 어른들에게는 다소 귀찮은 유형에 속할지 모르나, 가르치심의 참 뜻을 누구보다 잘 지키는 유형이다. 셋째는 언제나 "아니오."라고 하는 학생들이다.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럴 듯한 이유를 대면서 거부한다. 하지만, 경험이 부족한 "아니오."가 정당성을 갖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 ④ 우리는 흔히 우리의 낡은 낱말들을 현대적인 새로운 사상을 담을 수 없는 현 부대처럼 여긴다. 그러나 위대한 철학자들은 그런 낡은 말들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창조한다. 이런 말들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려도, 점차 익숙해지면 드디어는 자명하고 뜻 있는 말들이 된다. 보기를 들면, 칸트의 '이데아'라는 말은 플라톤이 사용한 희랍말이었는데, 죽은 말처럼 굳어 있던 것에 새로운 의미를 담아 살려낸 것이다.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이란 말 역시 종래 라틴말의 '존재'에다가 실존 철학의 개념을 담아서 새로운 의미로 창조한 것이다. 그것은 처음부터 그런 의미로 다듬어진 말은 아니었다.

